

호주 소득보상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정인영 연구원

요약

소득보상보험은 호주 생명보험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최근 판매·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계, 과도한 시장경쟁에 따른 낮은 보험료 책정, 상품운영의 경직성, 보험약관상 모호한 보험금 지급 사유 등에 기인함. 이에 감독당국은 소득보상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추가 자본적립을 비롯해 실손보상원칙에 부합한 보험금 산정·소득대체율 인하·보험기간 조정 등의 상품개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주기적 실태분석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함

- 호주 금융감독당국(APRA)은 개인형 소득보상보험(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IDII)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¹⁾
 - 호주 생명보험산업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소득보상보험²⁾에서 30억 호주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함³⁾
 - 호주의 개인형 소득보상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전체 개인생명보험 판매의 약 30%를 차지함
 - MLC Life, ClearView, AIA Australia TAL사 등은 손실이 확대되자 2020년 3월 소득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Agreed Value Income Protection Policies) 판매를 중지함⁴⁾
 - APRA는 보험계약자의 니즈를 일정 수준 충족시키면서,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과 고위험상품구조 개편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득보상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 소득보상보험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 확대는 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계, ② 과도한 시장경쟁에 따른 낮은 보험료 책정, ③ 상품운영의 경직성, ④ 보험약관상 모호한 보험금 지급 사유 등에 기인함⁵⁾
 - 사고 발생 후 직장에 복귀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

1) APRA(2020. 9. 30), "Final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ustainability Measures"

2)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은 개인형 소득보상보험(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과 영구장애보험(Total Permanent Disability: TPD)이 있음. 후자의 경우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디폴트 형태로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을 경우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함

3) APRA(2019. 12. 2), "APRA Intervenes to Improve Sustainability of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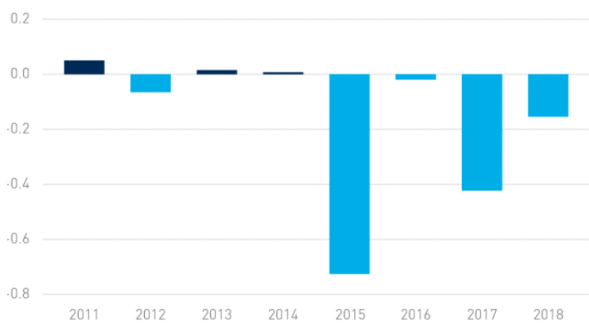
4) Financial Review(2020. 2. 10), "Life Insurers to Hike Disability Premiums, Reduce Benefits"

5) APRA(2019. 12. 2), "APRA Intervenes to Improve Sustainability of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APRA(2016. 4. 27), "Inquiry into the Scrutiny of Financial Advice - Life Insurance"

나, 지나치게 관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가입자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함

-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⁶⁾은 75% 수준이나, 소득보상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장애 전 소득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있음
- 일부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본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서 상품운영에 따른 손실 폭이 확대됨
- 대부분의 소득보상보험 상품이 5년 이상 상품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이거나 계약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갱신형으로,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운영이 어려움
 - 즉, 기존 보험약관 변경을 통한 보험금 지급기준 및 수준 변경이 불가능함
- 보험약관상 영구장애(Total Permanent Disability)에 대한 정의가 “일을 할 수 없는(Unable to Work)”이 아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Unlikely to Work)”과 같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그림 1〉 호주 개인형 소득보상보험 손실 규모 추이
(단위: 십억 호주달러)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APRA(2018. 7. 1), “APRA Insight - Issue 2 2018”

〈표 1〉 APRA의 소득보상보험 제도 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후관리 방안	• 추가 자본적립
고위험 상품구조 개편 * 신계약에 적용	• 보험금 산정기준 명확화 • 보험금 지급수준 조정 • 보험기간 조정
데이터 수집 및 평가	• 주기적 데이터 수집 • 산업분석보고서 발간

자료: APRA(2020. 9. 30)

○ APRA는 건전성 관리·감독을 위해 보험회사에 소득보상보험 상품 위험에 상응한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함

- 소득보상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손실로 보험회사 경영이 위협받게 되자, APRA는 개별보험회사의 소득보상보험 위험노출규모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자본적립(Capital Charge)을 요구함⁷⁾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형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로 연기함

○ 또한 기존 소득보상보험 상품설계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1년 10월 이후 판매되는 신규 상품에 대해 ① 실

6) “은퇴 전 근로소득 대비 은퇴 이후 연금소득 비율” 또는 “보험사고 발생 전 소득 대비 보험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함

7) APRA Letters(2019. 12. 2), “Sustainability Measures for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손보상원칙에 부합한 보험금 산정, ② 소득대체율 인하, ③ 보험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구조 개편안을 발표함

- (실손보상원칙에 부합한 보험금 산정)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계약자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안정적 소득흐름을 가진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기준 직전 12개월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함
 - 무급육아휴직, 비정규근로계약 등으로 소득변동이 큰 계약자는 직업·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평균소득 및 장애의 결과를 상실되는 미래소득을 반영하여 보험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함
- (근로소득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2021년 10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최초 보험금 지급 6개월 동안은 소득대체율이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함
 -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급보험금 한도 금액 설정 논의도 있었으나, 고소득자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가입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는 제외되었음
- (보험기간 조정)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함
 - 보험계약자는 계약만료 시 별도의 의료검진을 진행하지 않고 신규계약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나, 직업, 재무상태, 위험한 취미 등이 새로운 계약조항에 반영되어야 함
 - 한편, 보험회사가 소득보상보험 상품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상품의 지속가능성, 기존 계약자와의 공정성 등의 평가를 위해 선임계리사의 검토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아울러 소득보상보험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상품판매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 및 개별회사 차원의 주기적 실태분석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APRA는 최소 18개월마다 산업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소득보상보험 상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험료 산정 시 사용된 주요 가정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함
-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소득보상보험의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APRA의 일련의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